

4) 8·15해방과 교회활동

(1) 고려파의 분열

한국교회의 분열은 일제시대인 1930년대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한국사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 민족은 만주로 이민을 가야만 했다. 특히 한국의 교회는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선교활동비로 운영이 가능하였는데 이때부터는 선교비가 계속 삭감되고 있었다. 더구나 일제의 한국교회 탄압이 점차 가중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비리가 나타나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물론 이때 교회분열의 원인은 첫째로 지역적인 차이에 있었으며, 둘째로 신학적인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같은 원인은 대의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지도자들의 총회를 놓고 누가 그 주도권을 장악하느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순천노회도 새로운 각오로 교회의 재건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분열이 있었다. 해방이 되자 일제의 신사참배에 항거하다 평양형무소에 투옥되었던 70여 명 중 주기철·채정민 등 50여 명이 옥중에서 순교하고 20여 명만이 출옥하였다. 출옥한 이들은 평양 산정협교회에서 2개월간 머물면서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해 논의하였다. 한편 주남선·한상동 목사 등은 고향인 경남으로 내려가 1945년 9월 18일 경남노회의 재건노회를 조직하고 목사·장로·전도사 등은 자숙(自肅)에 옮겨 이단 교회를 사직(辭職)할 것이며, 자숙 기간이 종료되면 교역자에 대한 시무(始務) 투표를 하여 진퇴를 결정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자숙해야 할 노회 지도자들이 이 결의를 교묘한 방법으로 백지화시켰다.

1945년 11월 14일 평북노회 주최로 선천 월곡교회에서 교역자 퇴수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전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박형룡 박사가 한국교회 재건운동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이 발표되자 일제 때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홍택기 총회장이 강력히 반발, 신사참배에 대한 책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것이나 사람이 이를 정죄할 것이 못 된다고 나섰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재건에 대한 입장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뒤 교회행사 때마다 공산당과 소련군이 간섭하고 해방 후 처음 맞는 3·1운동 기념행사 때 폭력행위가 노골화되자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월남하였다. 월남한 한상동 목사는 전 만주동북신학교 교장 박윤선 목사와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주남선·한상도·박윤선을 설립위원으로, 1946년 9월 20일 박윤선 목사를 교장으로 부산에 '고려신학교(高麗神學校)'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기성교회와 유대를 갖지 못한 탓으로 경남노회에서 이 신학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1948년 4월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제34회 총회가 열려 당시 전남노회에서 고려신학교 신학생 추천문제를 문의하였는데 총회와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그뒤 제35·36회에서 고려신학교 인정문제로 소란을 피웠으나 한국전쟁으로 속개된 부산총회에서 고려신학교측을 총회 밖으로 쫓아버렸다. 총회 밖으로 쫓겨난 한상동·한부선 목사들은 고려파를 조직, 경남법통노회를 선언하였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된 최초의 사건이다.

이때 순천노회에서도 고려파의 영향을 받은 몇 교회와 최근에 개척된 고려파 교회가 있다. 이들 교회를 살펴보면, 광양 남부교회·구례 남부교회·승주 백록교회·순천 삼일교회·순천은평교회·광양 용주교회 등이 있다.

(2) 여순사건과 순천교회의 피해

한편 해방 직후 여순사건으로 당시 영흥교회 김병준 장로를 비롯하여 교인 윤형근·윤순근 등이 반란군에 의해 총살당하였으며 송기섭·서동규 장로 등은 총상을 입었다. 또 여수 애양원교회에 시무하고 있던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당시 순천사범학교 재학, 순천기독교학생연합회장)과 동신(당시 순천중학 재학), 그리고 고재춘(당시 순천사범학교 재학, 순천기독교학생연합회전조부장) 등은 '예수를 믿는 학생'이라는 죄목으로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총살당하였다. 이들의 시체는 인제동 뒷산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당시 순천 제일교회에 시무하던 나덕환 목사는 광주에 갔다 오다 별량지서를 점령하고 있던 반란군에게 붙들려 즉결총살형을 선고받고 지서 유치장에 갇혔다가 갑자기 들려온 비행기 소리를 진압군의 탱크 소리로 착각한 반란군의 소란을 틈타 한 민간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기도 하였다.

(3) 한국전쟁과 순천교회의 피해

일제의 압박 아래 신사참배 반대로 무수한 고난과 순교자까지 있게 된 순천노회는 해방과 더불어 일어난 여순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또다시 한국전쟁으로 북한에 점령되었던 약 3개월간 순천노회 소속 교회가 입었던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여순사건 당시 두 아들을 잃었던 여수 애양원교회 담임 목사 손양원은 한국전쟁을 당하여 피난을 할 수 있었지만 의지할 곳 없는 1,000여 명의 환자와 교회를 지키다, 9월 13일 북한군에 붙잡혀 여수경찰서에서 무수한 고난을 겪다가 28일 여수시 미평동에서 총살을 당하였다. 또한 당시 덕양교회 목사로 있던 조상학과 장천교회의 강도사 지한영, 군내교회 집사 허상용도 이때 손양원 목사와 함께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였으며, 순천노회 소속 교인 200여 명도 이들과 함께 총살당하였다.

(4) 교회분열과 순천지역 교회

해방이 되어 다시 교회를 일으켜 교세는 발전하였지만 통합과 분열을 거듭하여 온 현재의 한국내 장로교 교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통합파(統合派)·합동파(合同派)·고신파(高神派)·독립파(獨立派) 등이 갈라지고 대한예수교성서장로회에 ICCG 가입파와 ICCG 탈퇴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독로회, 미국예수교복장로파대한선교회, 만주장로한국선교회 등 여러 파가 난립하게 되었다.

그동안 고등비판(高等批判)을 성서 해석에 도입한 김재준 목사의 강의로 문제가 되었던 조선신학교측이 1953년 6월 10일 서울 한국신학대학 강당에서 9개 노회(전북·군산·김제·충남·경서·경북·목포·충북·제주)의 대표자 47명을 모아 '한국장로교법통총회'를 선언하고 제38회 총회를 속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법통총회를 부인, '대한민국 안에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통총회는 1954년 6월 10일 제39회 총회를 열어 '대한기독교장로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도신경'과 '장로회 공동신조'의 준수를 천명, 국내외 장로교회의 협조를 바라는 성명서를 공포하여 '예수교장로회' 외 '기독교장로회'의 분열을 기정 사실화하였다.

일제 때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있던 김재준 목사가 김태현 장로의 협조로 조선신학교를 설

립, 일본인 교장·교수들과 합동, 운영함으로써 한국에 자유주의신학이 싹트게 되었다. 특히 해방 후에 한국신학교에서 김재준 목사에 의하여 개자유신학(開自由神學)은 한국예수교장로회의 전통적인 보수신앙에 위협을 받게 되므로, 예장 안에 한국신학과 김재준을 배척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51년 부산에서 열린 예장 제36회 총회와 1952년 4월 대구에서의 제37회 총회에서 보수측의 주장으로, 대구총회신학교 설립이 결의되고 김재준 목사의 예장에서 서명과 그의 자유신학을 배운 한국신학교 졸업생의 교역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가 있었다. 이 결의는 전통적 보수신학을 고수하는 파와 보수신학에서 진보한 자유신학을 지지하는 파의 분열을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유신학계에서는 1952년 5월 제37회 총회의 불법 결의를 성토했던 성명서를 발표하고, 1953년 6월 한국신학교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예장 보수파와 노선을 달리하는 '대한기독교장로회'를 창립하였다. 초대 회장은 전주 김세열 목사가 피선되었다. 이때 예장에서 기장으로 전향한 교회가 적지 않았다.

그뒤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통합파'와 '합동파'가 분리되었는데, 이 분열의 실마리는 1959년 9월 24일 대전 중앙교회에서 열린 제44회 총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일부에서 주장하기를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자유주의적이며 객관적이고 세계 단일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의 보수적 전통에 위배되므로 여기에서 탈퇴하고자 제의하였다. 이것을 표결에 부치자 찬반의 두 주장이 맞서게 되었는데, 실상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면에는 외국 선교사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간섭과 재정문제 그리고 교단의 주도권 등 숙제가 있었던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탈퇴를 주장하는 측은 한국교회의 자립이라는 입장에서 외국 선교사들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측은 처음부터 한국교회의 창설에 공헌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주권을 침해함이 없는 한 선교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대전총회 뒤에 세계교회협의회 탈퇴문제에 대한 찬성파는 서울 승동교회(勝洞教會)에서 회합을 갖고 반대파는 연동교회(蓮洞教會)에서 회합을 가짐으로써, 세칭 승동파와 연동파로 분립하게 되었다. 이 혼란을 본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는 양파의 통합안을 마련하여 연동계로 하여금 통합총회의 방안을 결의케 하고 1960년 2월 17일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열었다. 이 통합총회의 방안은 '전문 8조'로 되어 있으나 그 골자는 한국교회는 분열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탈퇴한다는 것과 한국 장로교회는 자유주의적이며 객관주의적이고, 세계 단일교회를 지향하는 어떠한 에큐메니컬 운동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연동측이 주최한 통합총회는 승동측의 불참으로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통합총회만이 75년의 전통을 이은 '한국법통통합총회'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파'가 성립되었다.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탈퇴할 것을 먼저 제의한 '승동파'는 합동계의 모체가 되었다. 합동파의 성립은 1951년 신사참배 문제로 장로회에서 별립한 고려파(고신파)에서 승동계의 보수 전통을 고집하는 주의가 고려파의 주장과 영합된다는 점을 들어 양파의 합동을 약속하고, 1960년 10월 대전 중앙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개최, '합동'을 결의하였다. 이때 고려파의 600여 교회가 승동파와 연합하였다. 그런데 그후 성경장로회가 분열되고 1961년에는 대신총회가, 1962년에는 호헌총회(護憲總會)가, 1968년에는 '장신측(長神側)'이 각각 분열하였다. 1979년에는 '합동 보수(비주류)'가 분열되고, 1981년에는 '합동 개혁'도 분열되고, 계속하여 1982년에는 '보수파'가 분열되었고, '합동 진리'와 '합동 정통'도 분열되었다. 이처럼 합동측은 1959년 이후 아주 복잡한 분열의 과정을 겪는다.

해방 후 한국교회의 개혁운동의 하나로 1955년 박윤선 목사를 교장으로 한 '개혁신학교'가

서울 원효로에 세워졌다가, 그해에 부산 고려신학교에 연합됨으로써 개혁운동도 중지되었다. 그런데 1965년 서울 청량리 동산교회에서 개혁신학교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장로교 개혁 교단의 조직운동이 전개되어 1965년 9월에는 노회 조직이 결성되고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라는 교파가 성립되었다. 초대 회장에 정현택 박사가 피선되었다.